

#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

김순영 · 남윤자\* · 조우현\*\*

경일대학교 패션학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 Conceptual Meaning of Purple-series Color Names in the Clothing of Joseon Dynasty Period

Soonyoung Kim · Yunja Nam\* · Woohyun Cho\*\*

School of Fashion, Kyungi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2004. 4. 23. 접수)

### Abstract

In this study, color names focusing on the purple series, appearing in the clothing of the Joseon Dynasty, were classified systematically, and the conceptual meaning of each name were investigated through various metho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lor names of purple-series were classifi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integration scheme of morphemes, color names c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single names and composite names. Color names could also be classified into universal and limited names according to the areal distribution of literatures. Secondly, the conceptual meaning of the color names of purple-series were considered. The conceptual meaning c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etymological and dyeing methodological meaning', the other 'color systematic meaning'. By studying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color nam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aterial composition of colors, the etymological and dyeing methodological meaning could be grasped. Furthermore, the color systematic meaning of each name could be grasped through the cluster analysis of L\*, a\*, b\* values measured from the relics of clothing. Thirdly, the conceptual semantic structure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onceptual meanings of purple-series color names. The conceptual semantic structure of purple-series color names is forming discrete structure with the dyeing method and material of dyes as their semantic components.

**Key words:** Purple color, Color name, Conceptual meaning; 자색, 색명, 개념적 의미

### I. 서 론

모든 사물에 이름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색에도 이름이 부여되어 왔는데 이를 색명(色名)이라 한다. 색은 원래 그 본질이 시각적인 것으로서, 색명은 이러한 시각적인 색을 언어화한 것이다. 근래 십 수년간 전통색의 재현 및 응용 작업이 학계에서 혹은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실제로 염색

되어 발현된 색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연구자마다 개별적 명명으로 표기되거나, 표색계의 기호와 수치만으로 표기될 뿐, 국내에서 통용될만한 색 자체의 적절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마다의 개별적 명명은 보편성을 지니기 어려우며, 표색계의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름이 없이 표색계의 기호와 숫자 조합만으로 색을 표현하는 것은 전통

색의 올바른 표기방법이 아니다. 또한 색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 명도, 채도의 조합속에서 미묘하게 서로 다른 색조와 톤을 형성하는 하나의 장이다. 따라서 색의 이름도 색명의 전체적 장에서 서로의 차이와 비교를 통해 구조적으로 이해될 때 그 의미가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

전통색명(색채어)과 전통색채에 관해서는 주로 국어학, 색채학, 의류학이라는 세 가지 학문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전통색명의 체계적 분류와 전통색명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많이 부족하다.

紫色은 고대 동양의 사상으로 불 때 間色으로 여겨져 금제의 지속적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고위 신분의 상징색으로서 끊임없이 사랑받아 온 색이며, 조선에서는 왕족 여인들의 치마나 예복에 사용되어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거나 일상복 저고리 깃과 고름에 강조색으로도 많이 사용된 색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紫色系를 위주로 하여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색명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색계 개별 색명의 개념적 의미를 의미체계 내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용어정의

#### 1) 자색계 색명

색명(色名)은 색(色, 즉 색채 혹은 빛깔)의 이름이다. 원래 자연계에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색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어떤 계열로 명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수많은 색명을 논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어떤 기준에 의해 계열을 나눌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색명은 오랜 사상적 연원을 가지는 五正色の 종류와 고유어의 다섯 가지 기본색채어-붉다, 푸르다, 누르다, 희다, 검다-를 고려해 볼 때, 주로 赤(빨강), 靑·綠(파랑), 黃(노랑), 白(하양), 黑(검정)의 5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紫, 褐, 灰 등의 부수적 계열이 있을 수 있다. 자색계 색명이란 부수적 계열인 紫 계열에 해당하는 색명으로서, 색명 자체의 의미에서 ‘紫’와의 유사성을 이해할 수 있거나 색명의 일부분에 ‘紫’가 포함된 색명을 말한다.

#### 2) 색명의 개념적 의미

의미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의가 있

다. 그 가운데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Leech가 정의한 7가지 의미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이다. Leech(박종갑에서 재인용, 2001)의 개념적 의미는 어떤 표현이 쓰여지는 상황이나 쓰는 사람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지니는 의미로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이며 언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의미를 말한다. 색명의 개념적 의미는 색명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로서, 특정 색명을 보거나 들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색명에 해당하는 외적 대응물을 가리키거나 혹은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그 색에 대한 영상을 말한다.

### 2. 낱말발 이론과 성분분석 이론

색명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의 어휘적 구조를 밝히는데 이용되는 핵심적 방법인 낱말발 이론(lexical field theory)과 성분분석 이론(componential analysis theory)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 1) 낱말발 이론

Trier(박종갑에서 재인용, 2001)는 낱말발(lexical field)이란 내용상으로 봐서 인접하고 있고 상호적으로 의존해서 상호간에 그 기능을 규정하는 한 무리의 낱말들이며, 한 낱말의 통용 가치는 그것에 인접하고 또 대립되는 낱말들의 통용 가치에 의해서 한정될 때에 비로소 잘 이해되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만이 그 낱말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또한 Trier는 낱말들이 어휘 전체에서 직접적으로 분절되어 있지 않고 바로 상위의 비교적 작은 부분적 전체(즉, 부분장, sub-field)에서 분절되며, 이 부분적 전체는 보다 더 큰 전체에서 분절되어, 최종적으로는 어휘 전체를 포괄하는 계층적인 분절구조를 이룬다고 보았다.

Coseriu(박종갑에서 재인용, 2001)는 낱말발의 구성 요소로서 ‘어휘소(Lexem)’, ‘원어휘소(Archilexem)’, ‘의의소성(Sem)’을 말했는데, 어휘소는 낱말발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개개의 낱말들이고 원어휘소는 하나의 낱말발의 내용 전체에 대응되는 단위이며 의의소성은 어휘소들의 대립관계를 분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최소의 변별적 특징을 가리킨다. Coseriu의 의의소성은 곧 의미성분(의미자질)을 일컫는다. 또한 Coseriu(박종갑 재인용, 2001)는 발의 유형을 대의적 낱말발(antonymisch), 단계적 낱말발(graduell), 계열

적 낱말발(seriell)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가운데 단계적 낱말발은 발의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계단적 구획(계단대립)을 갖는 발이며, 계열적 낱말발은 발의 구성 요소들이 多項의 同價의 대립관계(등치대립)를 형성하는 발을 말한다.

2) 성분분석 이론

박종갑(2001)에 따르면 성분분석 이론에서는 단어의 개념적 의미를 단일 개념으로 보지 않고 추상적인 의미적 원소(의미자질, semantic features)의 집합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단어 woman의 의미는 [HUMAN], [FEMALE], [ADULT]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성분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성분 분석 이론은 단어 상호간의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밝히는데 효과적이며 낱말발 이론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색명의 개념적 의미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색명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적 원소(의미자질, 의미성분)로 구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색명의 개념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성분은 색명의 사전적 정의, 색을 만드는 재료 및 방법 등을 통해 추출될 수 있다. 성분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개별 색명이 어떠한 의미성분들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체계적 발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I. 연구방법

구체적 연구문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나는 자색계 색명의 종류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조사된 문헌자료는 총 9종류로서 朝鮮王朝實

<표 1> 복식유물의 종류와 소장처

소장처	복식명칭	연구자 명명 기호	착용자	착용연대	보관상태
숙명여자 대학교 박물관	紅裳	숙명-홍상	興完君(1815~1848)	19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朝服一襲	숙명-조복-2	興完君(1815~1848)	19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朝服一襲	숙명-조복-3	興完君(1815~1848)	19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祭服一襲	숙명-제복	興完君(1815~1848)	19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後綬	숙명-후수-2	興完君(1815~1848)	19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具軍服一襲	숙명-구군복	興完君(1815~1848)	19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唐衣	숙명-당-4	興完君(1815~1848)	19세기 후반	수장고 보관
	唐衣	숙명-당-7	興完君(1815~1848)	19세기 후반	수장고 보관
圓衫	숙명-원-6	興完君(1815~1848)	19세기 후반이후	수장고 보관	
오른대 한국 순교자 기념관	紫赤龍袍	오른대-자적용포	義親王(1877~1955)	1900년	전시
	遠遊冠	오른대-원유관	義親王(1877~1955)	1900년	전시
	唐衣	오른대-당-1	純貞孝皇后(1894~1966)	20세기 초	전시
	장옷	오른대-장옷	純貞孝皇后(1894~1966)	20세기 초	전시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민속 박물관	朝服一襲	단국-조복	심동신	19세기	전시
	後綬	단국-후수	심동신	1850년대	전시
	金冠	단국-금관	심동신	1880년대	전시
	저고리	단국-고종저고리	심동신	19세기 후반	전시
	綠衫	단국-녹삼	光海君妃柳氏(1576~1623)	17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唐衣	단국-당-1	光海君妃柳氏(1576~1623)	19세기 후반	전시
	唐衣	단국-당-2	德溫公主(1822~1844)	19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唐衣	단국-당-3	德溫公主(1822~1844)	19세기 전반	수장고 보관
唐衣	단국-당-6	德溫公主(1822~1844)	1860년대	전시	
저고리	단국-황색문단저고리	德溫公主(1822~1844)	1860~1880년대	전시	
국립민속 박물관	朝服(衣)	국민-조복(의)		19세기	수장고 보관
	具軍服(동달이)	국민-구군복-1		19세기	수장고 보관
	朱笠	국민-주립		19세기 후반이후	수장고 보관
	唐衣	국민-당-1		조선 중후기	수장고 보관

錄, 嘉禮都監儀軌類, 殯殿殯宮都監儀軌類, 불그류, 老乞大언해류, 朴通事언해류, 『규합총서(憑虛閣 李氏, 1809)』, 『林園經濟志(徐有矩)』, 『度支準折(규장각 소장본)』이다. 그 가운데 특히 嘉禮都監儀軌類는 尙衣院 제조품목이 기록된 부분, 殯殿殯宮都監儀軌類는 沐浴, 襲, 小斂, 大斂, 『규합총서(憑虛閣 李氏, 1809)』는 염색제법, 『林園經濟志(徐有矩)』는 展功志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복식이나 색명 관련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①어원 및 염색상의 의미, ②표색계상의 의미)를 이해한다. 어원 및 염색상의 의미는 위 문헌들과 語彙詞典類, 『尙方定例(尙衣院, 1750)』, 『星湖僿說(李瀾, 1740)』,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등에서 어원 및 염색재료와 방법을 고찰하여 파악한 의미이다. 표색계상의 의미는 실증적 유물조사와 염색실험을 통해 얻은 수치적 의미이다. 유물조사는 연대추정이 가능하면서 색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복식유물 27벌(32개)을 휴대용 측색기로 측색하여 나온 측색치의 근집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복식유물의 종류와 소장처는 <표 1>과 같다. 염색실험은 개별색명에 대해 『규합총서(憑虛閣 李氏, 1809)』, 『林園經濟志(徐有矩)』,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尙方定例(尙衣院, 1750)』 등의 염색기록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수차례 염색하면서 그 결과를 수시로 측색하여 유물과 가장 유사한 색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체계를 수립한다. 어휘의미론의 구조적 연구방법인 낱말발 이론과 성분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에 관한 구조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자색계 색명의 종류

여러 종류의 문헌자료에서 복식·직물과 관련하여 많은 자색계 색명들이 등장하고 있다. 많은 수의 색명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색명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형태소의 결합방식을 기준으로 단일색명과 복합색명(색명+무의미적단위, 색명+색명, 사물+색명, 형용사적 표현+색명)으로 나누고, 문헌분포영역을 기준으로 보편적 색명과 한정적 색명으로 나누었다. 총 9종의 문헌 가운데 실록과 의례류를 포함하여 4종 이상의 문헌에 등장하는 색명을 보편적 색명으로, 3종 이하의 문헌에 등장하는 색명을 한정적 색명으로 정리하였다. 문헌에서 횡수에 상관없이 색명이 1회 이상 보이는 경우 등장문헌으로 포함하였다. 자색계 색명의 종류를 보편적 색명과 한정적 색명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紫, 甫羅, 紫的은 보편적 색명에 해당한다. 紫는 등장 문헌의 종류가 8종으로 자색계를 대표하는 가장 보편적인 한자색명이다. 甫羅와 紫的은 등장 문헌의 종류가 6종으로 紫 다음으로 널리 사용된 색명이다. 그런데 『翻譯老乞大(崔世珍, 1510)』, 『翻譯朴通事(崔世珍, 1510)』, 『老乞大諺解(1670)』, 『朴通事諺解(1677)』, 『平壤監營重刊老乞大諺解(1745)』, 『重刊老乞大諺解(1795)』와 『才物譜(李晚永, 1798)』, 『廣才物譜(정양완 외, 1997)』 등에서 紫가 한글로 지디, 즈지, 즈덕으로 표기된 것을 볼 때, 조선에서 紫는 紫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 문헌분포 영역에 따른 자색계 색명의 종류

분류	자색계 색명의 종류					문헌 분포	색명수 (총 17)
	단일색명	색명+무의미적 단위	색명+색명	사물+색명	형용사적 표현 +색명		
보편적 색명	紫(즈, 즈디, 즈지, 즈덕)					8	1
	甫羅(보라)	紫的(즈덕, 즈지)				6	2
한정적 색명				紫芝		3	1
			紫赤, 赤紫	紫地, 丹木紫色, 灰甫羅(회보라), 지초보라, 양보라, 丹木紫的, 양즈덕, 洋紫芝	淡紫色, 眞紫(즈지), 眞紫の色	1	13

( ) 안은 한글표기임.

紫芝는 등장 문헌의 종류가 3종으로 紫的에 비해 보편성이 떨어지는 한정적 색명이다. 紫的은 ‘즈덕’으로도 읽히고 ‘즈지’로도 읽히는데, 그 중 ‘즈지’로 발음되는 경우의 한자표기로써 종종 紫芝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紫赤, 赤紫, 紫地, 丹木紫色, 灰甫羅, 지초보라, 양보라, 丹木紫的, 양즈덕, 洋紫芝, 淡紫色, 眞紫, 眞紫的色 등은 등장 문헌의 수가 1종으로 매우 한정적인 색명이다. 그런데 이들 색명이 전체 자색계 색명의 과반수 이상(76%, 즉 13/17)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문헌의 내용이 나머지 다른 문헌들이나 그 내용들과는 동떨어진 성격을 지니거나, 색명이 일정한 시기에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는 조사대상 문헌 및 그 기사내용의 성격과 문헌의 편년을 필수적으로 함께 고려해야만 조선 시대에 사용된 색명의 종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

### 1) 어원 및 염색상의 의미

#### (1) 단일색명

##### ① 紫

紫는 『禮記注疏(劉向 외)』의 ‘紫色赤黑也’ 기록을 볼 때 古代 중국에서 赤과 黑의 間色으로 여겨진 색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爾雅注疏(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2000)』의 ‘藐苳草[注 可以染紫一名苳]’나 『荀子(荀子)』의 ‘東海則有紫絃魚鹽焉’ 기록을 볼 때 古代 중국에서 이미 紫草를 紫色염색에 이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紫草는 매염제나 염색조건에 따라서 발현되는 색상의 정도(붉은 기나 푸른 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재료이므로, 원래 ‘紫’라는 한자색명은 비록 관념적으로는 赤과 黑의 간색이지만 실제 색조는 붉은 기가 강한 紫的의 색조와 푸른 기가 강한 보라의 색조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색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紫가 赤과 黑의 間色이라는 관념은 조선에까지 이어졌다. 『才物譜(李晩永, 1798)』와 『廣才物譜(정양완 외, 1997)』에서 紫가 ‘赤色帶黑’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紫는 조선에서 주로 紫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색명이었다. 다만 1910년 이후의 문헌인 『朝鮮女俗考(李能和, 1927)』에 紫色이 보라로 정의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 일본의 紫色(むらさき)과 관련된 정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紫(紫色)는 『林園經濟志(徐有矩)』와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에서 그 염색재료를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의 紫色 염색방법은 재료성분에 의해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紫草로 염색, 둘째, 蘇木과 紫草의 복합염, 셋째, 蘇木으로 염색, 넷째, 蘇木과 靛藍의 복합염이다. 조선에서는 紫草를 사용하지 않은 셋째와 넷째 방법의 紫色을 특별히 구분하여 丹木紫色이라 하였다.

#### ② 甫羅

甫羅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한자의 의미와 무관하게 다만 한자의 음을 빌어 표현한 색명이다. 김민수 외(1997)에 의하면 보라의 어원은 한자가 아니라 몽고어 ‘poro’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才物譜(李晩永, 1798)』에서 ‘靄羅’에 대하여 원래 ‘靄紫色’이었으며 한글표기로 ‘보라’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才物譜(李晩永, 1798)』와 『廣才物譜(정양완 외, 1997)』에서 이 靄羅(보라)를 ‘慘紫’ 같은 색으로 정의하고 있다. 慘은 곧 黪(퇴색할 참, 검푸르죽죽할 참, 淺青色 참)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원래 보라는 푸른 기가 도는 얼은 紫色을 의미한 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보라는 『규합총서(憑虛閣 李氏, 1809)』에 염색재료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표 4> 보라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로, 쪽과 연지의 복합염에 의한 것과 지초에 의한 것이다. 쪽과 연지의 복합염에 의해 얻는 보라는 여자와 소년남자의 색조가 달랐다. 한편 지초에 의해 얻은 보라를 지초보라라 하였는데, 『규합총서(憑虛閣 李氏, 1809)』에 좋은 지초보라의 빛같은

<표 3> 조선시대 紫色의 염색재료

색명	피염물	염색재료	매염제	출전
紫		蘇木	靑礬	『林園經濟志』展功志 澗染 [天工開物] 인용
紫		紫根, 紫草根		『本草綱目』, 『五洲衍文長箋散稿』種苳染紫辨證設
紫	布帛, 細帛	蘇木, 紫草	黃灰木	『林園經濟志』展功志 澗染 [鵝峰志] 인용 『五洲衍文長箋散稿』種苳染紫辨證設 [五洲瑣錄] 인용
丹木紫色	紬帛	蘇木	白礬	『五洲衍文長箋散稿』種苳染紫辨證設
丹木紫色		蘇木, 靛藍	灰	

‘도라지 꽃빛’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조선후기에 입혀진 지초보라는 보라의 사전적 정의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라지꽃의 빛깔을 상상해보면 지초보라는 푸른 기운이 강하지만 그리 얼지 않은 선명하고 맑은 색조가 떠오른다.

(2) 복합색명

① 紫의

원래 단일 한자색명인 紫가 조선에서는 주로 紫의으로 정착되었다. 紫의에서 주된 의미는 紫에 있으며 이에 결합된 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접미사적 성분으로 보인다. 紫의과 동일한 의미의 다른 한자표기로 紫芝, 紫地, 紫赤 등이 있다. 紫芝의 ‘芝’는 곧 芝草(紫草)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어 자체에서 이미 염색재료의 성분을 짐작할 수 있다. 紫地の ‘地’는 ‘지’라는 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紫赤의 ‘赤’은 ‘적’이라는 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차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은 모두 紫의만큼 흔한 한자표기는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紫의은 『尙方定例(尙衣院, 1750)』와 『규합총

서(憑虛閣 李氏, 1809)』, 『度支準折(규장각 소장본)』,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등에 염색재료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紫의의 염색방법은 재료성분에 의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芝草(芝草)로 염색하는 방법과 둘째, 紫草(지초)와 다목(즉, 蘇木)의 복합염에 의한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앞서 紫色의 항에서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의 방법과 동일한데 다만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 복합염의 순서가 다를 뿐이다. 이 외에 丹木紫色과 동일한 의미의 다른 이름인 丹木紫의이 있으며, 포도즙과 백반을 이용하여 비록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紫의色과 비슷한 색을 얻었다는 기록도 있다.

② 眞紫의色, 淡, 鮮明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의 種 此染紫辨證設에 색의 짙고 얼음이나 고옴 등의 표현이 함께 나타난 문장이 있다. 蘇木과 紫草를 이용한 紫色染法에 “10여차례 물들이면 鮮明하여 이용할 만한데 얼으면

<표 4> 조선시대 浦羅의 염색재료

색명	피염물	염색재료	매염제	출전
보라	너즈의 옷	팥, 연지	오미즈국	『규합총서』 염식제법
보라	쇼년남즈(의 옷)	팥, 연지	오미즈국	
지초보라		지초	알논 물	『규합총서』 염식제법 (國立圖書館本)
지초보라		지초	찬 갯물	『규합총서』 염식제법 (永平寺本)

<표 5> 조선시대 紫의의 염색재료

색명	피염물	염색재료	매염제	출전
紫의	吐紬 每匹	芝草 8斤	黃灰木 20斤, 梅實 1斤	『尙方定例』 恒例 入染式
紫의	絲 每斤	芝草 13斤	黃灰木 1同	
즈덕	명지(토주) 1필	즈초(지초) 6斤	노른지	『규합총서』 염식제법
즈덕	비단	즈초(지초), 다목	노른지, 빅번	
紫의	進獻紫의紬 1疋	芝草 5斤	黃灰木 5丹, 燒木 1丹	『度支準折』 入染磨鍊
紫의	紬 1疋	芝草 4斤 半	黃灰木 4丹, 燒木 1丹	
紫의	吐紬 1疋	芝草 6斤 6兩 8錢	黃灰木 6丹, 燒木 1丹 半	
紫의	大鹿皮 1張	芝草 4斤		
紫의	中鹿皮 1張	芝草 3斤		
紫의	小鹿皮 1張	芝草 1斤 11兩		
紫의	獐皮 1張	芝草 1斤 4兩	黃灰木 4兩, 燒木 1丹	
赤紫, 紫地		紫草		『星湖僊說』 萬物門
紫(眞紫의色)	細帛	蘇木, 紫草	黃灰木	『五洲衍文長箋散稿』 種 此染紫辨證設 [五洲瑣錄] 인용
丹木紫의		蘇木, 靛藍		『五洲衍文長箋散稿』 種 此染紫辨證設 [天工開物] 인용
紫의色似		葡萄汁	礬	『五洲衍文長箋散稿』 種 此染紫辨證設

(淡) 유용하지 않으므로 이는 眞紫의色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方言類釋(洪命福, 1778)』과 『重刊老乞大諺解(1795)』에는 ‘眞紫’가 ‘자지(즈지)’로 언해되어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의 紫의은 곧 眞紫의에 상응하거나 眞紫의을 포함했던 색명으로 보인다.

한편, 수차례 계속 염색을 하면 한 번 물들인 것보다 색의 기미가 더 강해지며 이에 따라 명도가 약간 더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기록에서의 鮮明은 빛깔이 고운 것뿐만 아니라 색이 더 진해진 것까지 함께 의미한 것이며, 淡은 물들이는 과정에서 색의 열음을 표현한 한자임을 짐작 할 수 있다.

2) 표색계상의 의미

(1) 집단 유형화 및 집단 특성

<표 1>에 제시된 총 27벌(32개)의 조선시대 복식 유물에서 얻은 460개의 측색치 가운데, 먼셀의 색상

기호 R과 P가 포함된 자료(즉, PB, P, RP, R, YR)를 추출하고, 다시 먼셀의 채도(C)값 1이하인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8개의 측색치를 선정하였다. 유물측색결과 및 염색실험결과 측색치에 관한 상세정보는 김순영(2004)의 연구결과물에 제시되어 있다.

208개 자료의 L\*값, a\*값, b\*값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의 빈도분포와 집단간 차이의 현저성 등을 고려하여 집단의 수를 20개로 결정하였다. 20개의 집단 가운데 자색계로 보기 어려운 14개의 집단(즉, 적색계, 백색계, 황색계, 청색계 등)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집단을 자색계 집단으로 결정하였다. 자색계 집단에 속한 자료의 수는 총 83개이다. 각 집단별 빈도(n)와 L\*, a\*, b\*, C\*, h값의 범위는 <표 6>과 같다. 각 집단의 L\*, a\*, b\*, C\*, h의 평균값은 <표 7>과 같으며, 각 집단의 L\*, a\*, b\* 평균치를 평면좌표에 표시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에서 원점에서 각 지점까지의 거리는 채도(C\*)를 의미하는데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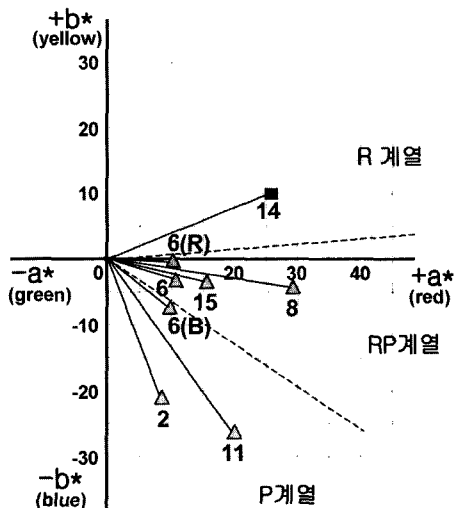
<표 6> 집단별 빈도(N)와 L\*, a\*, b\*, C\*, h값의 범위

집단명	집단	n	L* 범위	a* 범위	b* 범위	C*범위	h범위
紫的	6	24	16.82~27.04	8.47~11.93	-9.79~2.03	8.65~14.03	315.77~10.71 (-44.23~10.71)
眞紫的	6(R)	(16)	16.82~25.54	8.62~11.93	-1.94~2.03	8.65~12.09	350.07~10.71 (-9.93~10.71)
紫의주변 鴉靑주변	6(B)	(8)	17.71~27.04	8.47~11.27	-9.79~-4.92	9.79~14.03	315.77~330.08 (-44.23~-29.92)
紫的	8	21	19.45~26.34	20.45~34.98	-15.41~-1.34	20.48~37.28	335.59~3.46 (-24.41~3.46)
	15	6	28.89~33.10	12.77~21.54	-6.08~-1.94	12.92~22.38	344.25~351.36 (-15.75~-8.64)
보라	11	16	19.21~30.83	10.44~26.70	-33.08~-19.43	25.67~42.51	293.75~312.98 (-66.25~-47.02)
	2	3	33.75~35.54	7.01~8.73	-23.29~-18.48	19.76~24.87	289.97~290.78 (-70.03~-69.22)
褐變	14	13	25.18~29.91	15.84~33.90	6.30~13.41	20.38~34.81	12.32~38.98
	total	83	16.82~35.54	7.01~34.98	-33.08~13.41	8.65~42.51	289.97~38.98 (-70.03~3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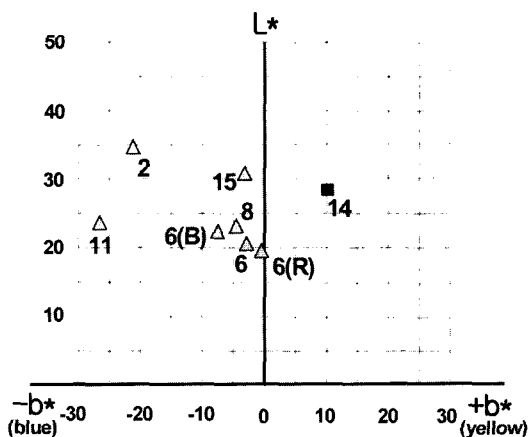
6(R)과 6(B)는 군집분석 결과가 아니라 추후의 논의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세분한 집단임. h범위에서의 ( )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h가 180°가 넘을 경우 +a축을 0으로 하여 시계방향(-부호 부여)으로 환산한 값임.

<표 7> 각 집단의 L\*, a\*, b\*, C\*, h 평균값

집단명 기준	紫的	眞紫的	紫의주변 鴉靑주변	紫的		보라		褐變
	6	6(R)	6(B)	8	15	11	2	14
L*	20.63	19.63	22.65	23.08	31.26	23.96	34.90	27.43
a*	10.27	10.47	9.87	29.17	15.82	20.1	8.02	25.85
b*	-2.81	-0.50	-7.41	-4.19	-3.64	-26.49	-21.55	10.18
C*	11.17	10.55	12.41	29.89	16.25	33.43	23.0	27.98
h	346.03 (-13.97)	-2.74	323.58 (-36.42)	352.42 (-7.58)	347.63 (-12.37)	306.89 (-53.11)	290.43 (-69.57)	22.23



<그림 1> a\*, b\* 평면 좌표



<그림 2> L\*, b\* 평면 좌표

채도가 높다. 원점에서 각 지점으로 직선을 연결했을 때 +a\*축과 그 직선 사이에 생기는 각이 색상각(h)으로, 각이 +방향으로 커질수록 즉, +b\*축에 가까워질수록 색상이 적색(red)에서 황색(yellow)으로 가까워지고, 각이 -방향으로 커질수록 즉, -b\*축에 가까워질수록 색상이 적색(red)에서 청색(blue)으로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L\*은 숫자가 클수록 명도가 높은 것이다.

(2) 집단의 명명

유물과 문헌을 대조하고 전통적 방법에 의한 염색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각 집단에 이름을 부여하였다.

① 紫의 집단(집단 6, 8, 15)

가. 집단 6

德溫公主(1822~1844)가 착용한 단국-당-2<그림 3>의 걸감과 걸고름, 안고름의 측색치가 모두 집단 6에 속했다. 『順和宮嘉禮時節次(1848)』와 『덩미가례시일기(1847)』에 후궁의 三揀擇衣服으로 紫의 金壽福字唐衣服(즈덕 금수복즈 당의복)의 기록이 있다. 후궁과 공주 신분의 유사성 및 동일한 金壽福字 장식 등을 볼 때, 단국-당-2의 걸감색을 紫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국-당-2 이외에 집단 6에 속하는 부위로는 덕은 공주가 착용한 단국-당-3의 걸고름과 안고름, 광해군비(1576~1623)의 願命衣인 단국-녹삼<그림 4>의 걸고름 등이 있다. 같은 집단으로 묶였으므로 이들 고름의 색도 紫의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집단 6은 모든 집단 가운데 색상각의 범위가 가장 넓은 집단으로, 먼셀의 색상기호로 본다면 7.6P에서 2.3R까지 분포하고 있다. 집단 6 내에서 이처럼 넓은 색상 분포를 가지는 측색자료들을 먼셀 색상기호의 평균치(6.1RP)를 기준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청색(blue)에 가까운 집단(7.6P~1.6RP)과 적색(red)에 가까운 집단(8.4RP~2.3R)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집단 6(B)라 하고 후자를 집단 6(R)이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단국-당-2의 걸감과 고름, 단국-당-3, 단국-녹삼의 고름은 모두 집단 6(R)에 속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집단 6(R)을 紫의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 6(R)은 전체 집단 가운데 명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따라서 조선의 紫의은 별도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좋을 만큼 짙은 紫의이었음이 유물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紫의 집단들과 구분하자면 집단 6(R)을 앞서 언급한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의 기록대로 眞紫의色 집단으로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집단 6(B)에 속하는 부위로는, 숙명-제복(의)와 숙명-당-4의 걸고름이 있다. 『임진칠월이십일 의화군관례시 의복헌야 보너오신불고(1892)』에 ‘아청 심수갑사 제복’의 기록이 있는데, 이에 준하여 생각한다면 흥완군(1815~1848)이 착용한 숙명-제복(의)의 빛깔을 아청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청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숙명-당-4의 걸고름이 숙명-제복(의)와 같은 집단 6(B)에 속했으므로 집단 6(B)를 ‘鶯靑 주변 집단’ 혹은, ‘紫의 주변 집단’ 정도로 명명해 두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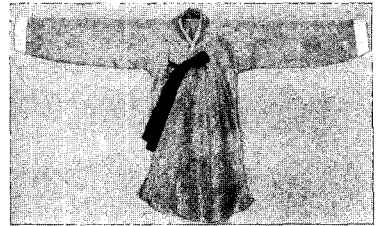




<그림 3> 단국-당-2  
『한국의 미(1988)』



<그림 4> 단국-녹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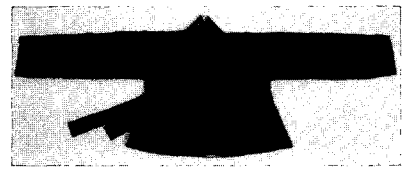
<그림 5> 오룬대-당-1  
『오룬대 한국 순교자 기념관(1996)』



<그림 6> 오룬대-원유관  
『한국 오룬대 순교자 기념관(1996)』



<그림 7> 염색표본 (집단 8 유사)



<그림 8> 단국-고종저고리  
『衣(1996)』

나. 집단 8과 집단 15

숙명-당-7의 걸고름, 오룬대-당-1<그림 5>의 걸고름과 안고름, 단국-당-6의 걸고름과 안고름, 단국-황색문단저고리의 걸고름과 끝동에서 축색한 수치들이 모두 집단 8에 속했다.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1627)』에서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1744)』 사이의 가례도감의 궤에는 妃·嬪母의 草綠赤古리에 사용된 ‘纓子紫의 綯長五寸廣二寸’의 기록이 있는데, 纓子에 紫의을 사용하는 전통이 국말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유물에서의 고름색도 紫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 8은 집단 6(R)에 비해 채도와 명도가 높게 나타나 훨씬 선명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 紫의이다.

이 외에, 집단 8에 속하는 부위에 의친왕(1877~1955)이 착용한 오룬대-원유관<그림 6>의 冠身이 있다. 『純祖實錄(1834)』 순조34년 11월 丙子일에 순조의 소령의대로 새로 만든 ‘紫의宮納 遠遊冠’의 기록이 있다. 비록 기록이 19세기 전반 왕의 것이지만, 그가 친왕으로 봉해질 때 쓴 것이므로 光武(1897년) 이전시기 왕에 준하는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오룬대-원유관에서는 모두 세 집단에 속하는 색이 축색되었는데, 그 중 冠身에서 축색한 것은 집단 8에 속했고, 관머리의 꼬임줄에서 축색한 것은 집단 15에 속했으며, 늘어뜨린 장식술에서 축색한 것은 집단 14에

속했다. 집단 15의 색상각은 집단 8의 색상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집단 15는 집단 8보다 명도가 약간 높고 채도가 낮은 특징이 있다. 오룬대-원유관의 冠身(집단 8)과 관머리의 꼬임줄(집단 15)에 의도적으로 다른 색을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는 직물과 실의 종류에 따른 색차이거나 紫의의 염색방법이나 횡수 차이에서 비롯된 색차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집단 8과 집단 15도 紫의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염색실험결과와 비교해 볼 때, 숙명주를 소목염 1회→자초염 4회→노린재 매염→자초염 5회→노린재 매염→자초염 3회→매실 후매염의 순서대로 염색을 하여 집단 8(특히 오룬대-당-1의 고름)과 유사한 색을 얻을 수 있었으며<그림 7>, 매실 후매염 이전의 색은 집단 15(특히 오룬대-원유관 관머리의 꼬임줄)와 유사한 색이었다.

② 보라 집단(집단 11, 집단 2)

고종(1852~1919)이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단국-고종저고리<그림 8>는 누비저고리인데 이 유물의 축색치가 모두 집단 11에 속했다. 19세기의 불기류에 왕족 남자들이 착용한 보라색 저고리(소고의, 동의대)의 기록이 많이 등장하며, 특히 『동림상감마마기유팔월의대불기(1909)』에 황제의 ‘보라감사누비동의대’의 기록이 있음을 볼 때 집단 11의 색을 보라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단국-고종저고리 이외에, 집단 11

에 속하는 다른 부위에는 숙명-후수-2의 구름과 타원형의 수, 단국-후수의 구름 수, 단국-금관에 달린 술 등이 있었다.

단국-고중저고리에서 볼 수 있는 보라는 매우 선명하고 맑은 보라인데, 지초보라를 도라지 꽃빛에 비유한 『규합총서(憑虛閣 李氏, 1809)』의 기록으로 추정한다면 유물의 색은 지초보라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숙명주를 紫草로 물들인 후 끓는 물이나 잿물에 후처리하여 얻은 보라는 집단 11과는 다른,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약간 흐리고 탁한 느낌의 보라였다. 유물의 색이 19세기 말의 연대를 가지므로 합성염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숙명-홍상의 허리부분에는 작은 매듭 고리가 달려있었는데, 이 고리의 측색치가 집단 2에 속했다. 집단 2는 집단 11과 유사하게 P계열에 속하지만 집단 11보다 청색치가 약간 더 강하고 채도가 낮으며 명도가 높다. 이는 쪽과 홍화의 복합염으로 얻는 보라 가운데 쪽의 푸른 색소가 많이 염착되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색조로 추정되므로 이를 집단 11과 함께 보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③ 褐變 집단(집단 14)

단국-당-1은 19세기 후반의 초록 홀당의인데, 이 당의의 겹고름과 안고름에서 측색한 수치들이 모두 집단 14에 속했다. 그런데 단국-당-1의 안고름에는 부분적으로 선명한 붉은 색의 기가 남아 있었으므로 단국-당-1의 안고름에서 측색된 색은 다홍 계통의 색이 심하게 변색되어 거의 갈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한 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물 당의의 겹고름에서는 紫의 집단의 색을 많이 볼 수 있었으므로 단국-당-1의 겹고름에서 측색된 색은 紫의 집단의 색이 약간 갈변한 것일 수 있다. 결국 단국-당-1의 겹고름과 안고름에서 측색한 수치들은 모두 다홍 혹은 紫의 집단의 색이 갈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체계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체계는 색명의 개념적 의미 가운데 어원 및 염색상의 의미를 근거로 만들어진 발 구조이며, 표색계상의 의미는 이러한 색명의 개념적 발 구조에 대입되어 색명의 개념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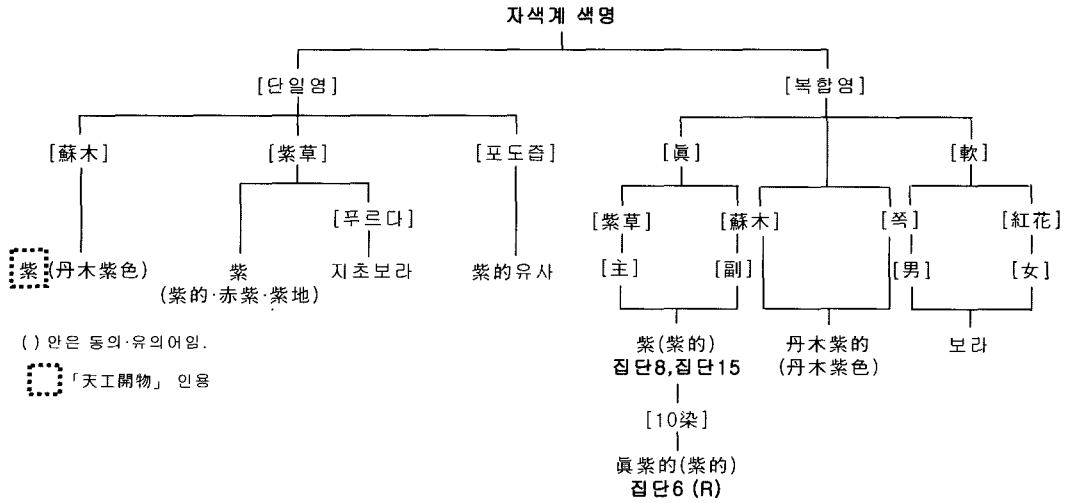
자색계 색명들은 모두 [紫]라는 개념적 의미의 공통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발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9).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낱말발은 일차적으로 염색방법을 의미성분으로 하여 [단일염]의 발과 [복합염]의 발로 나누어진다. 이는 紫色이 間色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색은 단일한 염색재료에서도 얻을 수 있는 색이지만 동시에 적색계와 청색계 재료, 혹은 적색계와 자색계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도 있는 색이기 때문이다. 염색방법에 의해 단일염과 복합염으로 나누어진 발은 다시 염색재료를 의미성분으로 갖는 부분장을 가진다. 단일염의 발은 [蘇木], [紫草], [포도즙]으로, 복합염의 발은 [紫草+蘇木], [蘇木+쪽], [쪽+紅花]의 의미성분을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조선에서 紫는 紫的, 赤紫, 紫地 등과 동일한 개념적 의미로 사용된 색명으로서 주로 [紫草]의 의미성분을 가지는 색명이다. 紫는 염색방법 및 부가염제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개념적 의미를 보이는데, 하나는 [단일염][紫草]의 의미성분을 가지고, 다른 하나는 [복합염][紫草(主)+蘇木(副)]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조선의 丹木紫色은 반드시 [蘇木]의 의미성분을 가지는 색명인데, 염색방법 및 부가염제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개념적 의미를 보인다. 하나는 [단일염][蘇木]의 의미성분을 가지며, 다른 하나는 [복합염][蘇木+쪽]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전자의 경우가 곧 중국(明)의 紫色과 동일한 개념적 의미를 보이는 것이다. 중국에서 蘇木으로 물들인 색에 대하여 그냥 ‘紫色’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丹木’이라는 사물의 이름을 부가하여 ‘丹木紫色’이라 명명하고 있는 사실은 丹木만을 통해 얻어지는 紫色은 조선의 기본적인 紫色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보라는 [복합염][쪽+紅花]의 의미성분을 가지며, 지초보라는 [단일염][紫草][푸르다]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복합염][쪽+紅花]의 의미성분을 가지는 보라는 성별에 따라 개념적 의미의 차이가 있어 소년남자가 사용한 보라는 여자가 입은 보라보다 [쪽]의 의미성분 즉, [푸르다]의 의미성분이 약간 더 강화된 경향을 보인다. 지초보라는 紫草를 재료로 하되 조작적으로 푸르게 만들어 얻을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푸르다]의 의미성분을 별도로 부가하였다. 紫草로 만들어진 보라에 대하여 ‘지초보라’라는 이름을 따로 부여한 것을 보면, 전통적으로 보라는 쪽과 홍화의 복합염을 통해 얻는 경우가 일반적인 일이었을 것 같다. ‘푸른 기가 도는 열은 紫色’이라는 보라의 사전적 정



<그림 9>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체계

의는 바로 이 쪽과 홍화의 복합염을 통해 얻은 보라에 해당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규합총서(憑虛閣 李氏, 1809)』의 기록을 볼 때, 조선 후기에는 지초보라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복합염을 통한 보라뿐만 아니라 紫草를 통해 보라를 얻는 일도 잦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紫的과 紫는 주로 동일한 개념적 의미로 사용된 색명으로서, [단일염][紫草]의 의미성분을 갖거나, [복합염][紫草(主)+蘇木(副)]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후자의 경우에 [10染]이상의 의미가 부가되면 眞紫的이 되는데, 별도로 ‘眞’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紫的’이라 하여도 곧 ‘眞紫的’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포도즙으로 紫의色과 유사한 색을 만들기도 했으므로 포도즙을 재료로 염색한 색도 紫的이라 명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색계 개별색명들의 의미적 대립관계는 계열적(同價的)인 경우와 단계적(계층적)인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단일염]의 의미성분을 공통적으로 갖는 부분장에서 紫(丹木紫色), 紫(紫的, 赤紫, 紫地), 지초보라 등은 서로 同價的인 계열적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복합염]의 의미성분을 공통적으로 갖는 부분장에서 紫(즉 紫的, 眞紫的)와 보라는 질고 열음의 계층적 관계를 가지므로 단계적 발달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紫(즉 紫的, 眞紫的)와 보라의 계층적 관계는 ‘진’, ‘연’ 등의 수식어가 색명에 직접 붙을 만큼 직선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다. 이는 紫(즉 紫的, 眞紫的)와 보라가 질고 열음의 차이

뿐만 아니라 색상 자체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굳이 ‘진’, ‘연’ 등의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았던 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 체계에 표색계상의 의미를 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단 6(R)을 眞紫的(紫的)에, 집단 8과 집단 15를 紫(紫的)에 대입할 수 있다. 집단 11은 그 빛깔이 매우 선명하고 맑은 보라로 문헌의 기록으로 추정한다면 지초보라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합성염료로 얻은 보라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체계에 대입하는 것은 보류하였다.

### V. 결 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를 의미체계를 통하여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종류를 문헌분포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자색계 색명 중 가장 보편적인 색명은 紫, 靑羅, 紫의이었으며 나머지는 한정적 색명에 속했다.

둘째, 어원 및 염색상의 의미와 표색계상의 의미를 통하여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표적 자색계 색명의 어원 및 염색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紫는 赤과 黑의 間色이며 紫草 또는 蘇木과 관련 있는 색명이다. 靑羅는 푸른 기가 도는 淺紫色으로 자초로부터 얻거나 쪽과 홍화의 복합염

으로 얻는 색이다. 紫의은 조선에서 紫와 동일한 개념적 의미로 사용된 색명이며, 별도의 형용사적 표현을 더하지 않아도 곧 眞紫의色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색계 색명의 표색계 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眞紫의집단(집단6(R))은 L\* 17~26, a\* 9~12, b\* -2~2의 범위에, 紫의집단(집단8, 15)은 L\* 19~33, a\* 13~35, b\* -15~1의 범위에 존재한다. 보라집단(집단 11, 2)은 L\* 19~36, a\* 7~27, b\* -33~-18의 범위에 존재하며, 褐變집단(집단 14)은 L\* 25~30, a\* 16~34, b\* 6~13의 범위에 존재한다.

셋째, 어원 및 염색상의 의미를 토대로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발구조를 수립하였다.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체계는 ‘자색계 색명’을 원어휘소로 하여, 염색방법과 염색재료의 종류를 의미성분으로 갖는 분절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 체계에 L\*a\*b\*의 수치로 제시된 眞紫的, 紫的 집단의 범위를 대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립된 색명 체계를 통하여 자색계 개별색명이 갖는 개념적 의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유물을 측색하여 표색계상의 의미를 제시하였으나, 유물 측색자료는 개념적 의미체계 전체를 커버해주지 못하였다. 또한 유물 측색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물에 가까운 색을 얻기 위한 염색실험을 병행하였으나 염색기술의 연마가 부족하여 얻을 수 있었던 색이 제한적이었다. 이후에 보다 많은 유물자료의 측색과 전통염색 실험이 함께 이루어져 더 정확하고 표준적인 개념적 의미체계로 보완되어 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類. 규장각소장 마이크로필름. 국립중앙박물관. (1988). *한국의 미*. 서울: 통천문화사.  
 국역조선왕조실록. (1995). (주)서울시스템 제작 CD-ROM.  
 김민수, 최호철, 김부림. (1997). *우리말 어원사전*. 서울: 태학사.  
 김순영. (2004). *조선시대 복식의 직색계와 자색계 색명(色名)체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당미가례시일기. (184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 (1994). 고문서집성, 1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궐상감마마대유팔월의대별기. (190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 (1994). 고문서집성, 1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종갑. (2001). *토론식 강의의를 위한 국어의미론(개정판)*. 서울: 박이정.  
 불기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 (1994). 고문서집성, 12-1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殯殿殯宮都監儀軌類. 규장각소장 마이크로필름.  
 憑虛閣 李氏. (1809). *규합총서*. 정양완 역주 (1975). 서울: 보진재.  
 尙衣院. (1750). *尙方定例*. 규장각소장 마이크로필름, 圭11.  
 徐有矩. (조선후기). *林園經濟志*.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영인 (1983). 서울: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석주선. (1996). *衣*.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1627). 규장각소장 마이크로필름, 圭13197.  
 荀子. (BC 3세기 경). *荀子*. 김학주 역 (2001). 서울: 을유문화사.  
 順和宮嘉禮時節次. (1848). 규장각소장 마이크로필름, 圭27008.  
 劉向, 鄭玄, 孔穎達. (戰國時代 이후). *禮記法疏*. 漢籍電子文獻資料庫 十三經. 자료검색일 2003, 8. 자료출처 <http://www.sinica.edu.tw>  
 李圭景. (19세기중엽). *五洲衍文長箋散稿*. 五洲衍文長箋散稿 (영인판). (1959). 서울: 동국문화사.  
 李能和. (1927). *朝鮮女俗考*. 김상억 역 (1990). 서울: 동문선.  
 李晚永. (1798). *才物譜*. 한국학민간연구소 영인 (1980). 한국고사전총서, 14. 서울: 아세아문화사.  
 李漢. (1740년 경). *星湖僊說*.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 (1966).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임진칠월이십일 의복헌약서 의복헌약 보낸 오신봉 기. (18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 (1994). 고문서집성, 1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1744). 규장각소장 마이크로필름, 圭13109.  
 저자미상. (1670). *老乞大諺解*.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인 (1944). 규장각총서, 9.  
 저자미상. (1677). *林通事諺解*.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인 (1943). 규장각총서, 8.  
 저자미상. (1745). *平壤監營重刊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영인판). (1984). 서울: 흥문각.  
 저자미상. (1795). *重刊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영인판). (1984). 서울: 흥문각.  
 저자미상. (조선후기). *廣才物譜*. 정양완, 홍윤표, 심경호, 김건곤 (1997).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 物名攷·廣才物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저자미상. (조선후기). *度支準折*. 규장각소장 마이크로필름, 가람古336.2-T126t.  
 저자미상. (晉·漢代 이후). *爾雅法疏*.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2000).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朝鮮王朝實錄. (1955). 국사편찬위원회 영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崔世珍. (1510년 경). *翻譯老乞大(上)*. 한국고전총서간행위원회 영인 (1974). 서울: 대제각.  
 崔世珍. (1510년 경). *翻譯老乞大(下)*. 인하대학교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영인(1972).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崔世珍. (1510년 경). *翻譯林通事(上)*. 한국고전총서간행위원회 영인 (1974). 서울: 대제각.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996). *오른대 한국순교자기념관*. 부산: 한국순교복자수녀회.  
 洪命龜. (1778). *方言類釋*. 方言類釋 (영인판). (1985). 서울: 흥문각.